

2024. 3. 20.(수)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3월 20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장애인 복지 정책과장	임지훈	02-2133-7440
장애인 권익보장팀장	정연순	02-2133-7360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도전행동 진단... 일상 불편·차별 줄인다

-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5개년 계획' 발표, 돌봄사각지대 최소화·삶의 질 향상
- 발생·몸짓 등 다양한 의사 표현 방식 개별 분석, 당사자 주변인에 효과적 소통방식 제안
- 중증장애인 이름통장·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부터 장애유형별 일자리까지 자립 지원
- 도전·돌발행동 분석 및 해결책 제시하는 'SI활용 시스템' 확대...자해·타해 위험 감소

-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유사한 일상을 누리고 이동·정보취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돌봄·보호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기본권 강화, 개별욕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자립 지원, 안전한 생활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24~'28)'을 20일(수) 발표했다. '19년 발표한 2기 기본계획에 이은 후속으로 '28년까지의 정책방향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보장을 위해 '14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발성·몸짓 등 다양한 의사 표현 방식 개별 분석, 당사자·주변인에 효과적 소통방식 제안>

- 먼저 단순 언어(말)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정보를 취득하고 또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인별 의사표현 방식을 분석해 장애인 당사자와 주변인들에게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제안한다.
 - 실제로 장애인의 경우 자신만의 발성과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인과 가족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오해하거나 제대로 된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장애인들의 소통을 돕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연계해 1차 진단평가를 내리고 그룹지원,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올바른 의사표현 방식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에게는 표현 방식을 이해하는 교육이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인 20회 지원하는 사업을 7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 이외에도 발달장애 유아·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응 훈련 ▲자립생활지원 ▲재활심리 치료 등 체계적 사회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가사를 포함한 일상 활동보조와 방문목욕·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만4,500명에서 '28년까지 2만6,5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장애인과 가족 대상 독서확대기·영상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125종) 지원과 정보화교육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부터 장애유형별 일자리까지 자립 지원>

-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는 ‘중증장애인 이룸통장’도 매해 확대해 나간다. 올해 700명을 시작으로 ’28년까지 9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추가로 15만원씩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사업이다.

-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 지출과 금전관리를 돕는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도 올해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다.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 갈취 위험 등에 노출된 2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반영해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곳에 신탁해 재산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장애인 당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도 올해 250개 제공하고 ’28년까지 450개로 발굴·확대해 나간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18세~65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도 6월부터 시행한다. 서비스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전문인력과 생활하는 ‘24시간 개별’과 낮에 산책·음악감상·체육 등 활동을 하는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 아울러 6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자 입원·경조사 등 긴급 상황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도 추진해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현재 2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종로·도봉)에 설치된 ‘AI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도 ’28년까지 4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 이 시스템은 AI가 발달장애인의 발차기·주먹질·쓰러짐·자해(머리때리기) 등 9가지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기록해 발달장애인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행동전문가가 패턴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사전 감지 및 돌봄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 안전한 이동권도 보장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3년 8월부터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 신청자 약 18만 명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특장차 포함)도 올해 신규로 60대를 증차, ’25년까지 총 870대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한다.
 - 이외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 내 상점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약국, 식당, 카페 등 생활밀착형 상점 경사로도 올해 600곳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28년까지 3,300곳에 확대한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존중과 차별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이 함께 동행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① 개별 맞춤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제공연계 : 1,000회('24년) → 1,400회('28년)
 - 서울시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개인별 특성·요구 파악 후 의사소통 전문가·전문기관 연계



초기상담 및 진단평가



서비스 제공 연계(3:3 그룹지원)



서비스 제공 연계(거주지 방문)

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활동지원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 24,500명('24년) → 26,500명('28년)

③ 도전행동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강화

- AI활용 행동분석시스템 설치 지원 : 2개소('24년) → 4개소('28년)
 - 비전 AI시스템 설치로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패턴 영상DB 구축(자치구)
 - 행동수정 전문가의 영상분석으로 개인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④ 장애인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 맞춤형 특화 일자리사업 확대 : 250개('24년) → 450개('28년)
 -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발굴 통해 장애유형별 특화 일자리 제공(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직무상담으로 취업 연계

⑤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

- 서울시 거주 만 6세 이상 장애인 대상 버스요금 무료승차 지원: 140만명('24년) 예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까지 각 5만원 한도내 지원

⑥ 장애인 디지털교육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확대

-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확대 : 4,800명('24년) → 5,200명('28년)
 - 장애인 및 가족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실시

⑦ 장애인 택시 이용 지원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차량증차 : 782대('24년) → 870대('25년)
 - 장애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이용 지원

⑧ 지하철 이동권 보장

- 승강장·열차 내 안전발판 등 설치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보장 : 22개소('24년) → 55개소('25년)



⑨ 지역사회 소규모상점 경사로 설치

-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약국, 식당, 카페 등)에 경사로 설치 : 3,000개소 ('24년)→'5,640개소('28년)

